

[Aura] 예술을 위한 양혜규의 즐거운 회상

March, 2016 | 김수진 에디터



예술가의 '회상'은 결국 멋진 작품을 만들게 하고, 배우와 뮤지션들의 '회상'은 더 깊이 있는 연기와 목소리를 갖게 한다. 우리의 '회상'은 결국 지금을 즐겁게 하고, 좀 더 나은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이 '회상법'에 실패한다면, 당신은 멜랑콜리한 감정에 휩싸여 옛날을 그리워만하는 허무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럴 바엔 비숍의 시처럼 '상실의 기술'을 익히는 게 낫다. 즐거운 회상의 기술을 위해, 좀 더 보고 싶어지는 스타들에게 사랑의 나팔과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해 물었다.

조형이가 돋보이는 모자 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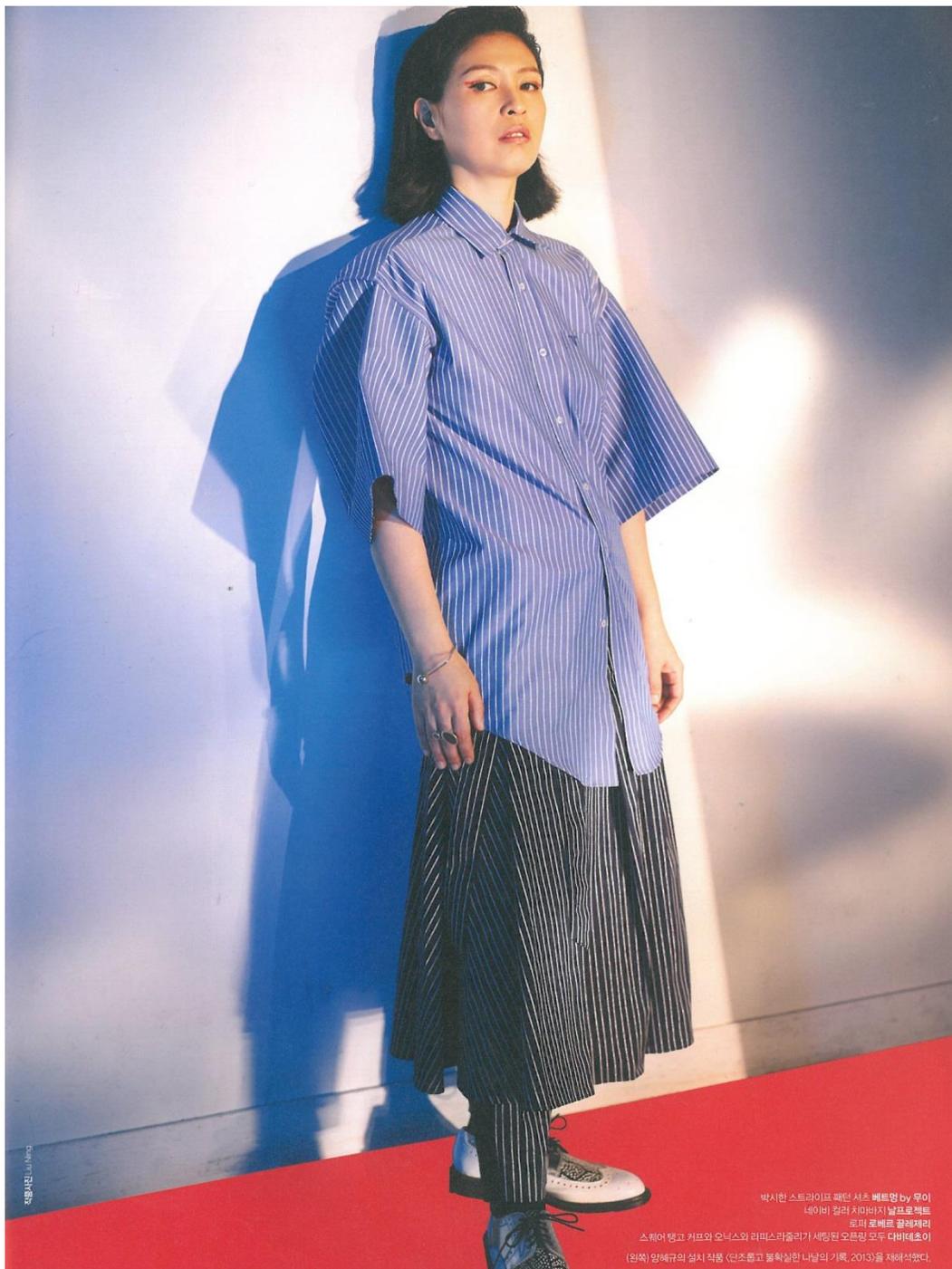
양혜규의 작품 (이모저모 토크, 2013(OK & RM)과의 협업, 런던)에 영감을 받아 포토그래퍼 김도환이 지면으로 재해석했다. 작風に 끌려주린 인물은 양혜규 작가.

Aura

예술을 위한 양혜규의 즐거운 회상

세계적인 배우가 결국엔 예술가나 연출가로 흐르듯, 세계적인 스타 작가들도 스크린에 등장하거나 감독이 되기도 한다. 그런 배우와 작가들이 서로의 페르소나가 되어줄 때, 몽클해지는 지점이 생긴다. 너무 유명해져서 이젠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갈등 구조'를 찾는 중이라고 말하는 스타 작가 양혜규(그녀에겐 20대의 팬덤까지 있다)가 이번엔 한국의 남자 배우를 물색 중이라고 했다. 그녀를 한 번이라도 만나 이야기해보고 싶어 하는 많은 셀러브리티가 이 소식을 듣는다면, 아마 번호표를 받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양혜규가 회상하고 싶은 그녀의 작품들을 <더 셀러브리티>가 재해석했다.

Editor 김우진 Photographer 김도원



Copyright © 2013

박시환 스트라이프 패턴 셔츠 세트 by 무이
네이비 컬러 치마바지 날프로젝트
로피 로베르 콜레제리
스튜디오 앤드 커프와 오닉스와 리미스라줄라기 세팅된 오프닝 모두 다비(초이
(왼쪽) 양혜규의 실지 작품 (단조롭고 불확실한 나날의 기록, 2013)을 재해석했다.

Yang Hae Gue

양혜규

"새우는 안 먹는다. 언젠가 태국의 한 육지에서 새우를 양식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후 먹기 싫어졌다. 바다에 있어야 할 새우가, 육지라니 끔찍하지 않아?"라는 말을, 오랜만에 만난 양혜규가 꺼냈다. 브런치를 함께 먹는 자리였고, 난 새우 스파게티를 막 시켜놓고 그녀에게 새우를 건네주려던 차였다. 따뜻한 빵을 건넸더니 빵도 먹지 않는다고 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국수와 밥이라며, 베를린 스튜디오에서 매일 음식을 해 먹었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땐 역시 한식 스타일로 가장 매운 걸 먹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왔을 때는 "12시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라고, 어제 퇴원한 환자처럼 창백하게 말했다. 언젠가 "요즘엔 폐기해버리거나 팔아버린 옛날 작품들이 생각나기도 한다"고 말하며 센티멘털해지기도 했지만, 역시 르네상스형 '양혜규'에게는 '희상'이라는 단어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에게 어떤 '결핍'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세계적인 스타가 된 데다, 현재와 미래만 있는 것처럼 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어떤 다른 '활동'을 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아웃사이더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랙 일색으로 마무리하고, 아이리언을 어딘가 삐끗하게 그린 채 도전적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노매드 같은 단어가 어울리긴 하지만, 그녀는 사실 타없이 성실한 작가다. 절대적인 시간을 '작업'에만 할애하면 서 말이다. 총격적인 현대의 스타 작가들 사이에서 이런 수공예적 성실함이 그녀를 그들과 구별해주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방금까지 수많은 작업의 재료를 만지다가 온 것 같은, 그래서 담백해 보이는 얼굴로 다시 만난 그녀는 많은 것에 익숙해진 것 같기도, 관대해진 것도 같다. 몇 년 전 스튜디오에서 만난 그녀는 낯선 사람과 상황 앞에서 사진을 찍히며 한 손을 불안하게 떨기도 했는데, 이번엔 웃을 입술 벌이나 걸어입고도, 기꺼이 원하는 포즈들을 묵묵히 그리고 무심하게 취했으니 말이다. 그런 모습만 보고도 그녀가 정말 밟잡할 수 없는 '스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화이트 셔츠 옴로 랍프 로빈
리본 디테일 풍 재킷 언더커버 by 루이
캐츠 아이 더블링 디비데로이
양혜규가 모리미 출판 레스토랑에
설치한 <항신월출우월 주기, 2015>를
재해석했다.

메이드 디자인의 원피스 기욤리
이키마우스를 연상케 하는 선글라스
린다 패로우 by 한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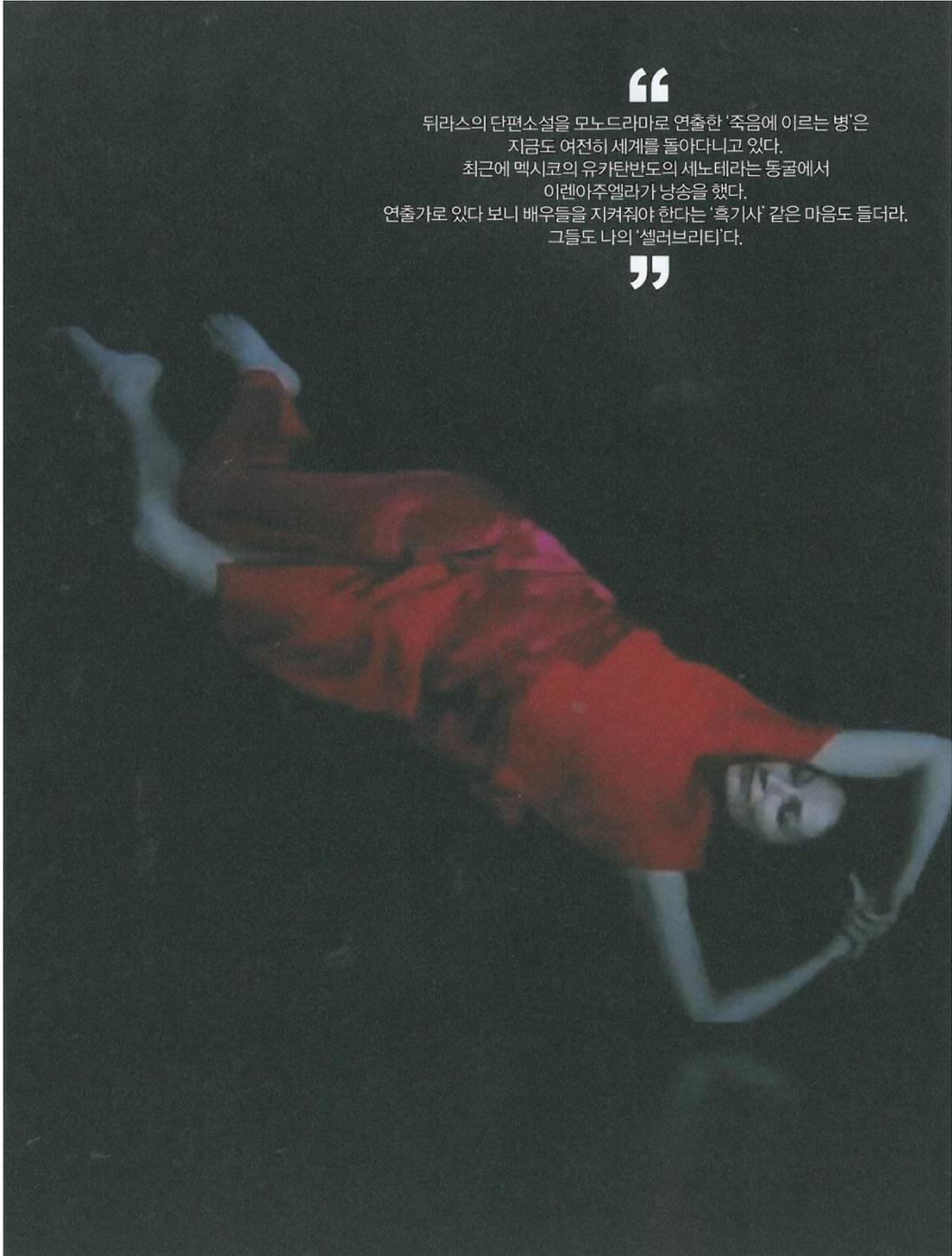




“

뒤라스의 단편소설을 모노드라마로 연출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최근에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의 세노테라는 동굴에서
이렌아주엘라가 낭송을 했다.
연출가로 있다 보니 배우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흑기사' 같은 마음도 들더라.
그들도 나의 '셀러브리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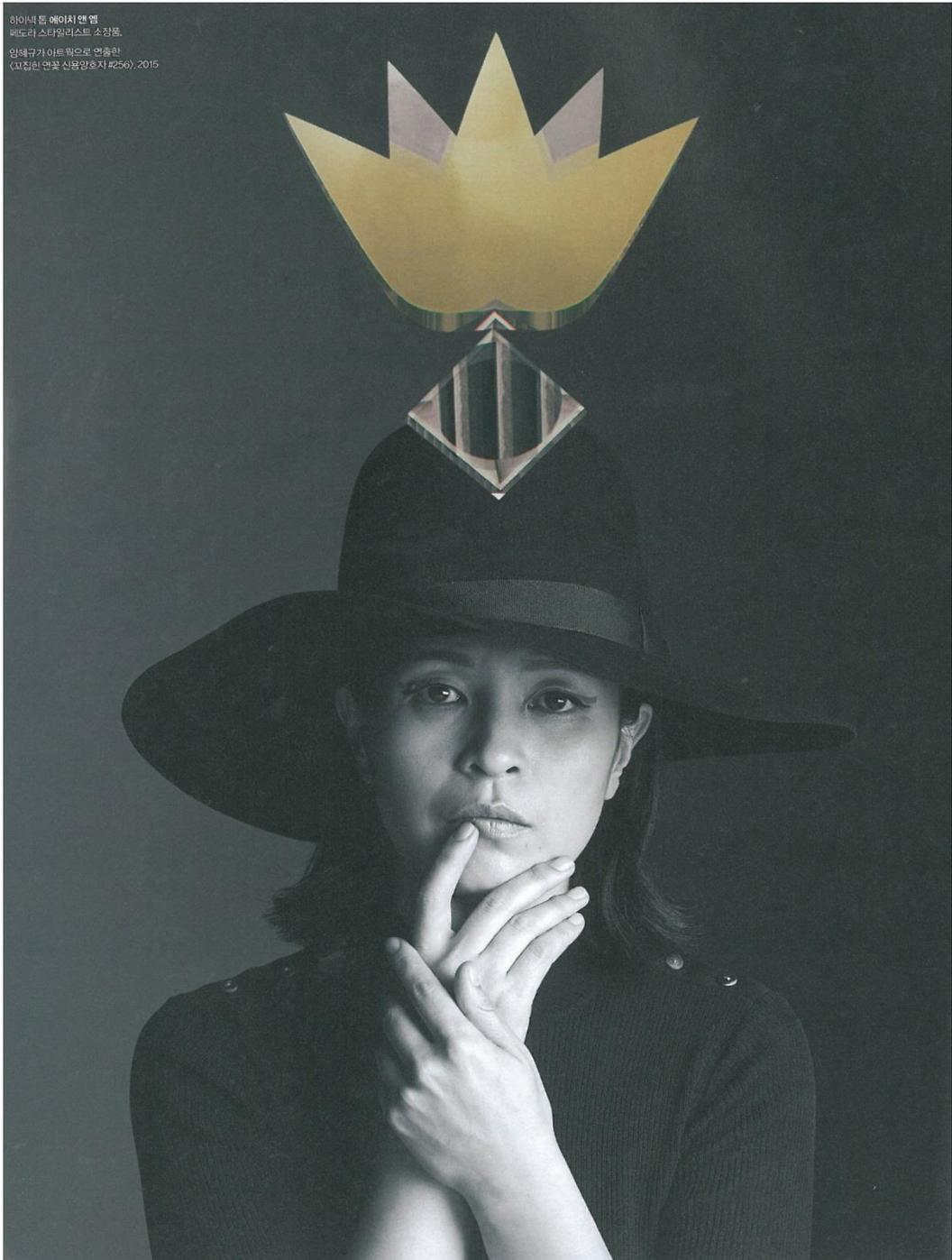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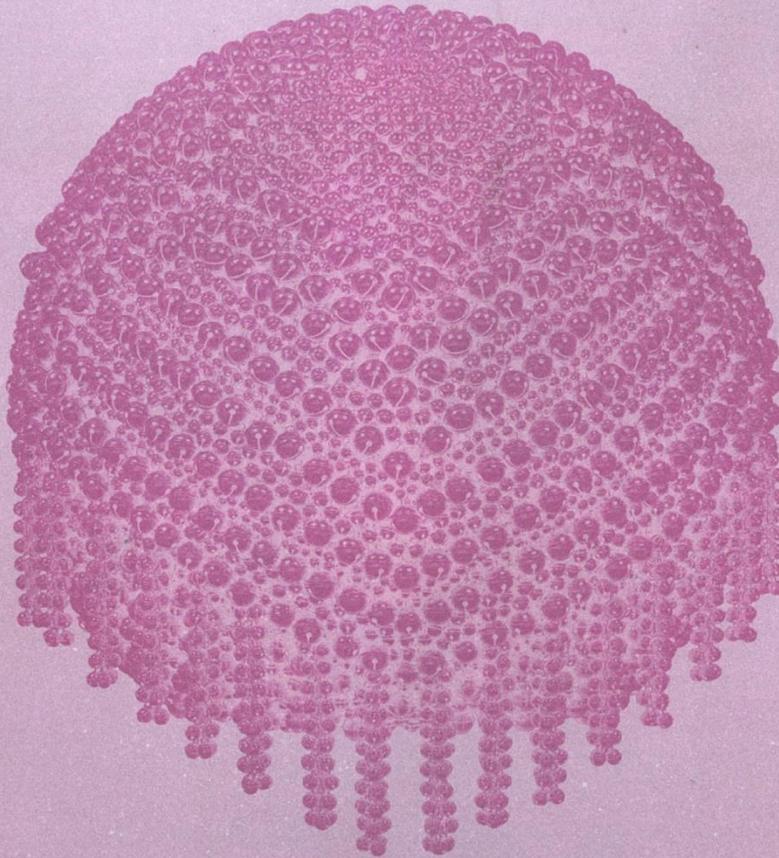


소매가 화이트한 셔츠 에이치엔엘
팬츠는 폴로 할프 코펜
재킷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양혜규가 배우 진는 발리바와 함께 모노드라마로 연출한
(죽음에 이르는 병) 중 발레. 2012 영상스틸

하이디 톰 에이치엔엘
베도라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잉헤리가 아트웍으로 연출한
(최침의 연꽃 신명광호지 #250), 2015



양라규의 설치 작품
〈소리 나는 구 - 어섯 살식 구리, 2015〉를 재해석했다.



“2006년도, 2008년도는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다. 2004년에서 2005년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다시 미술계에 컴백한 게 2006년이다. 네덜란드 BAK 기관에서 하는 개인전을 시작으로. 많은 일이 그해에 있었다. 인천 사동에서 〈사동 30번지〉라는 작은 개인전을 열었고, 그해 가을에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나갔다. 이 세 전시가 굉장히 의미 깊었다.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나갔던 해는 국가관이 폐지되던 때라 한국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독일에서 100% 지원을 받아 나가기도 했다. 그때 처음으로 블라인드 대형 설치 작업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만남이 많이 이뤄졌다. 그 전시를 본 큐레이터들이 2008년에 나를 초대했으니 말이다. 〈사동 30번지〉 전시 때도 외국 큐레이터가 찾아왔는데, 역시 나중에 초대하더라. 그래서 LA에서 첫 개인전을 했고, 또 카네기 인터내셔널 대형 전시에도 참여했다. 모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더라. 예전에는 전시를 다 컨트롤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소장전이 열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 활동들이 나를 성장 시키지는 않지. 하지만 주력하는 몇 개의 전시에 한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인기를 실감하나? 이제 어디에서는 당신의 얼굴을 대부분 알아볼 것 같다. 내가 아는 사람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더 많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전사가 세계에서 열리고 있으니 유명해진 건가? 지난 20년 동안 작업하며, 나에게 대한 오해들도 풀면서 많은 것을 해설했듯이, 그런 갈등 구조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갈등 구조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일까, 그런 갈등 구조가 그냥 주어졌는데 말이다.

작가들, 갤러리 큐레이터들에게 요즘 메일이 쏟아질 것 같다. 오히려 무감각해졌나? 어떤 작가들은 '죽고 싶다'는 메일까지 보내더라. 대부분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메일인데, 답변하지 않는다. 대신 작년에 시작한 팟캐스트 '말하는 미술'에서 알리고 싶었던 미술 작가들을 소개한다. '권병준' 편은 다운로드가 1만 회가 넘었는데, 그냥 듣는 것까지 생각하면 엄청 인기 있던 거다. 듣는 독자들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이 굉장히 많아 늘었다.

영화를 준비한다고 했다. 영화까지 양혜규의 예술로 끌어들이는건가? 물론 나는 장식성하기에 작품 소재를 가리지 않지만, 영화라는 장르는 그보다 훨씬 어렵다. 너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프랑스 영화감독이자 비주얼 아티스트 에릭 보틀레르와 함께 연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역사적인 예술가 2명의 바이오그래피가 주된 플랫폼을 구성하는 영화다. 한 남자 배우가 여여내야 하니 배우가 중요 하다. 내년엔 서울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남자 배우에 대해서는 아직 비밀인가? 힌트를 준다면? 정체성이 모호한 배우, 인위적으로 만든 건 전혀 없는 자연스러운 사람, 하지만 내가 추리를 계속해야 하는 남자,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최근 막 끝난 중국의 UCCA 갤러리에서 연 개인전이 당신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었을 것 같다.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아니었나? 베이징 소재 율렌스 현대미술 센터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중국에서 전시를 한 건 어떤 면에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문화권, 지역성 같은 갈등 구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관성의 범칙이 생길까 봐. 예전에는 미술관에 작업 하나 넣기 힘들었는데, 요즘엔 세계 여러 미술관에서 작업 의뢰가 온다. 그렇게 무감각해지다 보면 '정말 과몰입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중국 전시에서 '갈등 구조'를 많이 겪었나? 중국에 처음 진출하면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감정 같은 걸 느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은 '너를 안다'였으니까. 중국에서도 '서구에서 잘나가는 작가지만, 여기에서 똑같이 평가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그런 분위기. 특히 중국은 비판적이고 자생적인 생각이 많은 나라다. 또 이젠 한국에서는 못 느낀 건데 내가 여자이다 보니,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를 느꼈다. 전시 제목 '우기청호'에 대해서도 중국 기자들이 엄청 그 이유를 물어보더라. 회의적이든 비판적이든 그것에 주목했다는 것이 좋았다.

작년에 한 리움에서의 개인전은 양혜규의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 이이기도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리움에서는 처음부터 규모 있는 걸 하고자 의도했고, 그 나이에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치러야 하는 전시였다. <사동 30번지> 같은 전시가 양혜규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리움 전시와 <사동 30번지>를 비교하는 건 어매가 있다. 굉장히 장식성이고, 혼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의 작가적인 성격이다. 나를 국가 대표나 파워풀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끝없이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싶다.

그 다른 면모가 어떤 일인가? 전사가 아닌, 작가들에게 경력이라고 하는 포맷에서 벗어나는 활동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도 그렇고, 요즘엔 작은 번역을 하고 있다(사실 시간이 안 나지만). 아비 바부르크의 <뱀의식>이라는 책인데 작가가 1923년도에 여행을 다녀와 정신병원에서 강한 내용을 적은

것이다. 미술사가었던 그는 사실 정신병도, 정체성 문제도 있었는데 서양미술사에 인디언의 의식이나 제례 같은 걸 처음으로 접목했다고 해야 할까, 사실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나도 못 하니 좋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 명의 양혜규가 존재하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스케줄을 묵묵히 소화해내는 것, 사명감인가? 사명감이랑이보다 책임감이나 윤리의식 같은 게 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을 매 순간 더 의식하려고 노력한다. 독일에서 활동하다 회의가 드는 점이 그곳에서는 작가로서의 경력을 쉽게 쌓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없다는 생각이다. 집중해서 작업도 잘 되는데 이상하지? 모두들 내 작업과 전시를 열심히 보러 오는데 말이다. 사회적 교류가 없고 간섭이 없으니 사회와 주변의 개인들과 헝거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중국의 뒷세척원 누가 시비라도 걸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지언정, 그런 게 사실 필요한데, 아무런 배경이 없는 나를 담아낼 만큼 고도로 세련된 서구 사회에 대한 허탈감이랄까, 그게 계속 내가 말한 '결핍'인데, 결핍이 필요하다.

현재와 미래밖에 없어 보일 정도로 엄청 성실한 것 같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나? 최근까지는 그것 외에 다른 옵션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서임했고, 그게 지금의 나에게 걸맞은 거라 생각한다. 겸손하기 위한 방편 같은 거랄까, 덜 우악스럽게, 우아하게 작가 활동을 해온 사람들을 보면 나의 성실함이 정말 우악스럽게 보일 때도 많았다. 하지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 "네가 여진히 올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너는 이제 감이야." 여러모로 의식해야 하는 순간들이다. 어릴 때부터 서민적이야야 한다는 교육을 많이 받았다. 엄마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런 거치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최근에 운 적이 있나? 있다. 그런데 인과 관계가 없다. 나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 나에게 대해서 무심하다는.(웃음)

힘든 순간들을 친구들과 보내는 편인가? 난 힘든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 함께한다는 건 사실 그건 자신인 거다. 고통을 느낀다는 게 사실은 진심으로 통기도 하고 울다가 생각한다. 고통 없이는 어떤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사실 이런 묘사가 너무 전형적이다.(웃음)

힘들 때 친구들과 만나지는 않지만, 해규의 친구들은? 제일 친한 친구는 지금 행방불명 상태. 베를린 커미셔너 주운지, 큐레이터 정도면, 그리고 멕시코 오박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

양혜규가 느끼는 두려움은? 의존적으로 되는 거, 죽고 싶을 때 못 죽는 거, 당신의 셸러브리티는? 영원한 나의 셸러브리티는 로맹 가리와 뒤라스다. 로맹 가리는 참 글래머러한 삶을 살았다. 그는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며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상을 두 번이나 땀지만, 죽을 때까지 자신이 에밀 아자르였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에밀 아자르를 찾아다녔는데 말이다. 로맹 가리의 책 중에서 <새벽의 약속>은 로맹 가리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뒤라스의 정체성도 굉장히 모호하다. 그에게는 가난이라는 정체성은 비밀이어야 했다. 나는 이런 인물들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미술 작가로는 멕시코 출신의 가브리엘 오르조코와 독일 작가 로즈마리 트로켈이 아직도 궁금한 사람이다.

좀 더 사적인 생활을 물어도 되나? 사실 거의 알려진 게 없어서 궁금하다. 술은 안 마시고, 현대음악을 좋아하고, 또 무얼 말할까? 어릴 때는 다 제각각인 우리 가족에 대해 '왜 이리 콩가루야?'라고 화가 난 적도 있었지만, 덕분에 난 독립적으로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것 같다.

또 떠나나? 내일 아침에 유럽으로 떠난다. 서울에는 4월 말 정도 다시 오는데, 금방 돌아가야 할 것 같다(그녀에게 서울은 여전히 이방인의 도시일까). 이번기에는 영화를 촬영해야 하니 한동안 있겠다.



이녀 몸과 패턴 슈트 모두 앤디앤랩
조커로 연출한 리얼 스타일리스트 소정음.
양혜규의 <그 위에서 내려다오는 시자춤 -
산문원호지 #240, 2019년> 재해석했다.
Styling 조윤희 Hair 안미연/Makeup 이영
Assistant 김나연, 최세나